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김 홍 우

<目 次>	
1. 서 언	4. 5.16 비판과 민주발전
2. 5.16과 경제정책	5. 결 론
3. 경제정책의 이념적 배경	

1. 서 언

본고는 첫째 5.16이후 약 3년간(1961.5.16~1963.12.16)에 걸쳐 軍事政府가 추진한 경제적 제반조치와 그 이념적 배경을 개관하고, 둘째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당시의 『思想界』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셋째 1960년대 초 대립적 정치세력간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 한국정치의 발전방향이 어떻게 모색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5.16과 경제정책

『韓國軍事革命史』는 1961년 5월 16일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首都 서울을 비롯하여 全國 各 主要都市를 掌握한 革命軍은 軍事革命委員會를 組織하고 午前 9時 現在로 全國에 非常戒嚴을 宣布하는 同時에 立法, 司法, 行政權等 一切의 張勉政權을 午前 7時를 期하여 引受한다고 宣言하였다.”¹⁾ 이에 앞서 軍事革命委員會는 전국 라디오 방송

1) 韓國軍事革命史 編纂委員會, 『韓國軍事革命史』, 第1輯, p.329 (이하 『韓

10 특징 : 한국 政治의 發展方向 연구

당을 통하여 혁명공약 6개항을 발표하였다.²⁾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혁명공약” 6개항 가운데에 “[民主]라는 문투가 한 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³⁾

혁명후 3일째인 5월 19일, 軍事革命委員會는 그 명칭을 “國家再建最高會議”로 개칭하고, 입법·사법·행정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 “最高會議”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朴正熙 將軍이 張都映 將軍을 대신하여 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職에 취임하였다. 그는 “就任辭”에서 “혁명”의 제 1 단계 과업이 “爲先 달성”되었다고 밝히고, 2단계의 추진의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五월 一六일 軍事革命 舉事 이후 월여에 걸쳐 혁명 과업 완수에 노고가 많았던 張都映 장군이 금반 일신상의 사정으로 國家再建最高會議 의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불출 본인이 議長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그간 국민 제위의 절대적인 신임과 협조를 얻어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는 혁명과업의 초기 목표를 爲先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전도에는 과거 십여년간에 걸친 舊政權下 積弊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재건과 社會道義의 확립 등 허다한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

.....

背水の 陣을 친 우리들에게는 이제 후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國軍革命史』로 略함).

2) 같은책, p. iii. 다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제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 3) 田駿, “五一六革命과 海外論調: 庶民層의 따뜻한 눈초리”, 『思想界』(1961년 7월호), p. 172.

우리들 앞에는 오직 前進이 있을 따름입니다.⁴⁾

그후 半年이 지난 1962년 2월 26일 朴議長은 陸軍士官學校卒業式에서 행한 “訓示”에서 “革命은 거사와 腐敗勢力의 구축만으로 끝”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⁵⁾ 그에 의하면 5.16은 “오로지 부패된 정치권력을 부인한 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⁶⁾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앞에는 國民에게 공약한 무거운 革命課業들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⁷⁾ 뿐만 아니라 5.16은 “민족 자체가 자각하고 있는 이상을 구현하는” 새로운 “轉機”가 되어야 한다.⁸⁾ 여기서 朴議長은 혁명의 종언이 아닌, 혁명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國家再建最高會議 시기(1961. 5. 19~1963. 12. 16)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과감한 경제개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시기에 이룩된 경제개혁은 그후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정책은 크게 보아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경제적 부조리를 一掃하기 위한 “剔扶政策”으로써, 農漁村高利債整理와 不正蓄財者 및 不正公務員處理를 들 수 있다.⁹⁾ 둘째는 경제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推進政策”으로서 第一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¹⁰⁾ 國土建設事業,¹¹⁾ 蔚山工業地區開發,¹²⁾ 輸出振興策, 商工業育成策 및 交通通信事業¹³⁾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이와같은 推進政策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支援政策”으로서 政府組織의 改編,¹⁴⁾ 經濟企劃院

4)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 I : 최고회의편』(1961년 7월~1963년 12월) pp.3-4. 이하 『박대통령 연설문집 I』로略함.

5) 같은 책, p.194.

6) 같은 책, p.225.

7) 같은 책, pp.248-249; 225.

8) 같은 책 p.225.

9) 같은 책, pp.283-284, 1104-1105; 281, 465-477.

10) 같은 책, pp.286-287, 396-399, 415-418, 916-954, 1006.

11) 같은 책, pp.768-771, 954-977, 985-1003.

12) 같은 책, pp.285-286, 626, 977-985.

13) 같은 책, pp.1134-1268, 1212-22; 1132-1212; 399-400, 418-420, 1222-1268.

14) 같은 책, pp.337-342, 625-628.

新設,¹⁵⁾ 國家企劃制度의 創設¹⁶⁾, 財政・金融政策,¹⁷⁾ 農村・水産政策,¹⁸⁾ 各種經濟諮問委員會設置,¹⁹⁾ 農村指導體系의 一元化,²⁰⁾ 그리고 各種法令의 整理와 制定²¹⁾을 들 수 있다. 넷째는 기존의 제반정책 가운데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補强政策”으로서 經濟外交의 강화,²²⁾ 監査・視察・實態調査의 강화²³⁾ 및 勞使管理의 強化²⁴⁾를 들 수 있다.

3. 경제정책의 이념적 배경

朴 議長에 의하면, “혁명 제 2 단계”의 당면목표는 “國民道義의 확립”과 “國民經濟의 건설”에 있다.²⁵⁾ 여기서 특히 “國民道義”는 朴 議長이 추진한 경제개혁의 이념적 토대에 해당된다. 바꾸어 말하면, 朴 議長이 추진한 경제발전의 이념적 토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가 말하는 “國民道義”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에 朴 議長에 연설문에 나타난 “國民道義”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朴 議長은 “國民道義”라는 말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표현한다. 예컨대 그는 “道義”,²⁶⁾ “社會道義”,²⁷⁾ “社會氣風”,²⁸⁾ “사회질서”,²⁹⁾ “社會敎化”,³⁰⁾ “民心收拾”,³¹⁾

15) 같은 책, pp.663-664, 919.

16) 같은 책, pp.624, 628-652.

17) 같은 책, pp.1003-1067.

18) 같은 책, pp.1074-1131.

19) 같은 책, pp.482-485, 492-495.

20) 같은 책, pp.626, 663, 1070, 1093-1100.

21) 같은 책, pp.477-482, 679-681, 840-870.

22) 같은 책, pp.395-396, 412-413, 678, 708-711, 712-723, 732.

23) 같은 책, pp.404-405, 410-411, 525-619, 664, 707-708, 717-718.

24) 같은 책, pp.423, 1324-1335.

25) 같은 책, pp.3, 6, 11, 17, 24, 35, 43, 98, 99, 100, 114, 140, 166, 223, 245, 285, 310, 390.

26) 같은 책, pp.35, 99, 100, 114, 218.

27) 같은 책, pp.3, 20.

28) 같은 책, pp.25, 68, 69, 139, 363, 391, 403.

29) 같은 책, pp.126, 138, 217.

“民心安定”,³²⁾ “정신혁명”,³³⁾ “人間革命”,³⁴⁾ “人間改造”,³⁵⁾ “社會改造”,³⁶⁾ “民族改造”,³⁷⁾ “國民改造”,³⁸⁾ “生活改善”,³⁹⁾ “生活革命”,⁴⁰⁾ “新生活體制”,⁴¹⁾ “민족의 新氣風”,⁴²⁾ 등등을 “國民道義”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둘째 朴議長이 말하는 “國民道義”의 기저에는 당시의 사회적 풍토 내지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깔고 있다. 朴議長은 그의 연설문 여러 곳에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폐습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예를들면 朴議長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민족의 커다란 短點”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派閥意識과 낡은 系譜에” 집착한 政治이다;⁴³⁾ 이때문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國家利益과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오직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꾀한 나머지 醜雜한 派爭과 痼疾化된 腐敗로 인한 치욕의 기록만을 남겼”다⁴⁴⁾;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같이 말이 많고, 서로 헐뜯는 사회는 없”다;⁴⁵⁾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謀略中傷이 많”으며,⁴⁶⁾ “義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親切性이 우리에게는 아”쉽다;⁴⁷⁾ “과거에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할 일을 다하지 않고 빈곤만

30) 같은 책, p. 240.

31) 같은 책, pp. 6, 16.

32) 같은 책, p. 11.

33) 같은 책, pp. 9, 14, 457.

34) 같은 책, pp. 172, 173, 183, 403.

35) 같은 책, pp. 191, 195, 269, 282, 285, 367, 383, 390, 391, 392, 402, 496, 497.

36) 같은 책, p. 367.

37) 같은 책, pp. 402, 552.

38) 같은 책, pp. 25, 34, 90, 112, 141, 238, 446, 562.

39) 같은 책, pp. 230, 238, 4, 5.

40) 같은 책, p. 235.

41) 같은 책 ‘ pp. 67, 238, 363.

42) 같은 책, pp. 438, 442.

43) 같은 책, p. 552.

44) 같은 책, p. 463.

45) 같은 책, p. 193.

46) 같은 책, p. 7.

47) 같은 책, p. 148.

을 탄하는 자포자기적 기풍으로 세월을 보내었”다;⁴⁸⁾ 또한 “뚜렷한 방안도 없이 남을 헐뜯기만 일삼는 퇴보적이며 파괴적인 경쟁”이 비밀비재하였다;⁴⁹⁾ “우리는 건국 이래 모든 분야에서 齟齬와 모순과 낭비와 稚拙을 겪으면서……後進國家經濟의 域을 벗어나지 못하”였다;⁵⁰⁾ “한 방울의 땀을 흘리기를 피하면서 〈政治過剩〉으로 非生產的인 政商羣가 애국을 口頭禪으로 내이고 있는” 것이 “목전에 전개된 오늘의 현실”이다;⁵¹⁾ “일부 정치인들”은 “애국적 目標達成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적 부작용의 현상을…代案 없는 비난의 政略的 對象으로 삼고 있”다.⁵²⁾

朴 議長은 특히 “우리의 혁명 과업을 실패로 몰아 넣으려는 모략・중상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⁵³⁾ “우리들의 혁명에 대하여 곡해하고 懷疑의인 태도를 취하고 나아가서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⁵⁴⁾ 朴 議長은 第三共和國의 “憲法案에 대하여”서도 “일부 계층의 왈가왈부”가 있음을 지적한다.⁵⁵⁾

朴 議長은 말하자면 다양한 의견이 상호 경합・경쟁하며, 때로는 상충・대립하는 것이 모든 정치세계에 공통된 속성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와 같은 의견의 대립을 오직 우리 사회에만 국한된 “고질”과 “악습”으로 매도하였고,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병리현상”으로 진단하였다. 여기서 朴 議長은 차제에 “우리들의 주변에서 혁명과업의 수행과 새로운 民政下의 앞날을 저해하는 일체의 모략 중상과 誣告와 暴力行爲는 물론 自虐과 모든 社會惡의 근원”을 “근절”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⁵⁶⁾ 그에 의하면, “헐뜯고 욕하며 시기하던 퇴폐한 道義는 이제 완전히 씻어

48) 같은 책, p.179.

49) 같은 책, p.511.

50) 같은 책, p.184.

51) 같은 책, p.570.

52) 같은 책, p.472.

53) 같은 책, p.6.

54) 같은 책, p.17.

55) 같은 책, p.260.

56) 같은 책, p.339.

버려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⁵⁷⁾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서로 남을 헐뜯고 욕을 하고 꼬집고 모략·중상을 하는 이런 態度, 이런 思考方式”으로 “과연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근대화할 수 있는”지가 극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⁵⁸⁾ 朴 議長의 이와같은 우려는 1962년 3.1節 “記念辭”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한 가족을 말하더라도 화목하고 단란하며 튼튼한 가정은 이웃 사람들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밤낮 不和만 계속되고 살림이 어지러워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個人이나 家庭이나 國家나 그 이치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⁵⁹⁾

여기서 朴 議長은 “부질없는 비판과 反目對立으로 파문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민족의 단결을 그르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⁶⁰⁾ 한마디로 朴 議長이 “혁명 제 2 단계”의 당면목표로 설정한 “國民道義”의 이면에는 이와같은 정치세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깔려 있다. 그것은 다양한 의견간의 대립과 상충을 본질로 하는 정치세계의 기본속성을 단순한 “모략과 중상”과 동일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세계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말하자면 朴 議長의 “沒政治的” 내지는 “反政治的” 이데올로기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國民道義”에는 긍정적 요소도 함축되어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직 재기할 수 있는 力量을 가진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에 입각하여, 낡은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특히 경제발전에 불가결한 새로운 가치관을 재창조하자는 호소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民道義”의 기저에는 한국사회전반에 대한 朴 議長의 否定的 評價가 짙게 깔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같은 점은 1962년에 출간된 『우리民族의 나갈길』(東亞出版社)에서도 엿보인다. 특히 이 책에서 朴 議長이 지적한 “우리民族의 惡遺産”

57) 같은 책, p. 148.

58) 같은 책, p. 527.

59) 같은 책, p. 200.

60) 같은 책, p. 442.

7개 항목—1. 事大主義의 自立精神의 缺如; 2. 게으름과 不勞所得觀念; 3. 開拓精神의 缺如; 4. 企業心의 不足; 5. 惡性的 利己主義; 6. 名譽觀念의 缺如; 7. 健全한 批判精神의 缺如 等⁶¹⁾—은 이상에서 밝힌 부정적 시각을 가장 잘 집약해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朴 議長이 말하는 “國民道義의 확립”은 이상과 같은 우리 歷史의 부정적 전통을 改革・改造함으로써, 짧게는 경제재건을 조속히 이룩하고, 궁극적으로는 “참된 民主福祉國家”를 건설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상 朴 議長은 “혁명의 제 2 단계”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 구축으로 정당화한다. 그는 “革命”의 궁극적 목적이 “진 政權의 非民主的인 모든 잔재를 일소” 함으로써 “진정한 自由民主主義의 土臺를 세우는데 있”다고 선언한다.⁶²⁾ 그에 의하면 “우리는 올바른 民主政治, 참다운 經濟再建, 청신한 國民道義를 구현시키기 위하여 日夜 분투하고 있”다는 것이다.⁶³⁾ 뿐만 아니라 “우리는…이 나라 민주주의의 완전한 開花結實을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切開手術에서 오는 陳痛을 감수하고 극복해야만”⁶⁴⁾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朴 議長이 民主主義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二重的 態度이다. 朴 議長은 한편으로는 舊政治人들이 표방한 이른바 “외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 스스로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옹호자로 자처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軍”이야말로 “말없이 민주주의를 행동으로써 실현한” 민주주의 보루라고 확신한다. 朴 議長은 1963년 大統領選舉期間중에 행한 한 “演說”(9월 28일)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大韓民國에 있어서 구정치인들 보다는 우리 國軍將兵들이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입으로 떠들지는 않지만, 과거 六・二五사변을 전후해서

61) 朴正熙, 『우리민족의 나날』(서울, 東亞出版社, 1962), pp. 84-96.

62) 『박대통령 연설선집 I』, 위의 책, p. 118.

63) 같은 책, p. 98.

64) 같은 책, p. 8.

오늘까지 조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았을 때, 大韓民國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와 목숨을 바치고 나와서 싸운 것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말없이 민주주의를 행동으로써 실천한 것입니다.

당시 舊政治人들은 후방으로 전부 피란 가서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의子弟들은 적당한 수단으로 전부 軍隊에 가지 않고 후방에서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美國에 留學보내어 戰爭에서 도피시킨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방에 앉아서 입으로만 떠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民主主義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⁶⁵⁾

民主主義에 대한 朴議長의 二重的 態度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설에 나타나는 두가지 형태의 민주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立法院 중심의 議會民主主義이고, 다른 하나는 行政府 중심의 민주주의 즉 朴議長이 말하는 “현대적 牧民精神”⁶⁶⁾에 입각한 민주주의 또는 “行政的 民主主義”이다.

朴議長은 議會民主主義에 관한한 극히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점은 그의 연설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건국과 동시에…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福祉를 위하여 殉國하여야 할 그 이른바 정치인들은 이기적인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인하여 가장 불행한 議會主義의 墮落을 가져”온 장본인이다.⁶⁷⁾ 심지어 “민주주의란 國會議員과 新聞記者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극언까지 하는 국민이 나타날” 정도였다.⁶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역시 그동안 “지나치게 依他的이었으며, 무책임하고 利己的이었으며, 奢侈와 浪費를 茶飯事로 하고, 자유와 放縱을 혼동하여 法과 秩序를 지키지 않았”다.⁶⁹⁾ “우리는 그동안 주어진 西歐 民主主義 制度를 移植해서, 그 형태만을 모방해 왔”으나, “우리의 풍토와 생리에 맞지 않았던지 허다한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중

65) 같은 책, p.530.

66) 같은 책, p.184.

67) 같은 책, p.184.

68) 같은 책, p.53.

69) 같은 책, p.23.

에서도 특히 “稚拙한 議會政治와 부패한 정치인들은 派爭과 利權과 감투 싸움에 寧日이 없는 나머지, 社會正義를 한없이 어지럽혀 야박한 思考만이 彌漫하”기에 이르렀다.⁷⁰⁾ 朴議長은 특히 5.16발발 당시 우리나라 議會는 절망적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5.16과 더불어 “전쟁과 절망적 투쟁만을 일삼는 議會를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변한다.⁷¹⁾

朴議長의 議會民主主義에 대한 가장 집약된 견해는 그가 訪美기간중 外交協會에서 행한 “演說”(1961년 11월 17일) 가운데 나타나 있다:

…美國이 짧은 군정 기간에 가르쳐준 民主主義를 우리 국민은 열성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 것은 民主主義의 겉질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위대한 民主主義의 꽃을 피우게 하는데 토대가 된, 길고 고생스러운 투쟁으로 이루어진 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民主主義에 대해 가장 중요한 基盤 즉 經濟自立, 건전한 精神, 法的 秩序 및 社會正義를 인식하고 발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대부분은 無氣力・依他心・利己主義에 빠졌던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의 결과로서 우리에게는 放縱・混亂・無秩序 및 落膽만이 있었습니다.

…民主主義는 陰謀・中傷・謀略으로 타락하였습니다. 權力層은 책임감이 없었으며 국민들로부터 유리되어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된 자들과 공모하여 巨富를 축적하였습니다. 資本家들은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고 탈세를 하고 密輸와 不正蓄財를 일삼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노력함이 없이 인생에 있어서의 안이한 성공을 바랐던 것입니다.

…농민들은 그들의 수확물을 先賣해야 했고, …거리에는 혈색이 나쁘고 쇠약한 失職남녀가 범람하였으며, 하루종일 일하여도 겨우 굶주린 배를 채우기조차도 힘들었습니다.

金融機關은 소수의 금융가들의 손아귀에 농간되었으며, 政治人들과 결탁하여 經濟의 특징이 大衆의 出血을 강요하였습니다. …

…그 당시의 韓國 實情은 만신창이가 된 정치체제로서 그 이상 더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⁷²⁾

70) 같은 책, p. 28.

71) 같은 책, p. 120.

72) 같은 책, pp. 118-119.

朴 議長의 議會民主主義體制에 대한 批判과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할 점은 혁명초기에 朴 議長이 議會民主主義의 개혁에 대해 가졌던 비교적 낙관적 입장은 후기에 접어들면서, 즉 민정이양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급속도로 퇴색하였다는 점이다. 초기에 그는 “지난날의 왜곡된 民主主義를 지양하여 우리에게 알맞는 민주주의를 재확립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⁷³⁾ 그러나 민정이양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朴 議長의 이와같은 낙관론은 회의론으로 급변하였다. 이것은 그의 일련의 연설문 특히 舊政治人과 관련된 주요 聲明書 가운데서 엿볼 수 있다.

예컨대 朴 議長은 「政治活動淨化法」 공포에 즈음한 “特別談話”(1962년 3월 16일)에서 “과거의 政治的 腐敗와 무능은 政黨과 國會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아부하고 뇌동한 官僚・企業人 등에 의해서 만성화하였고, 그 결과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 몰아넣었던 것이니 만큼, 舊政治人들은 그 당시의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여전히 자기 또는 자파의 정치적 세력 부식을 일삼고 政治舞臺에서의 재기를 몽상하는 厚顏無恥한 자들이 허다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政權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면 몹서리치는 政治的 腐敗가 다시 대두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경고한다.⁷⁴⁾

그후 1년이 지난 1963년 2월 18일에 발표된 시국수습에 관한 “二・一八談話”에서 朴 議長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개탄한다:

지난 50일 동안 민주정치의 새 역사를 창조할 정치활동들을 概觀할 때, 새로운 정치적 체질 개선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는 커녕, 오히려 舊惡을 벗어나지 못한 옛 모습 그대로의 정치 양상에 본인은 비할 바 없는 실망과 그리고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국가 장래에 대하여 무한한 不安을 금할 길 없습니다.⁷⁵⁾

73) 같은 책, p.123.

74) 같은 책, pp.205-206.

75) 같은 책, p.374.

20 특집 : 한국 政治의 發展方向 연구

새로이 허용된 정치활동재개와 이에 뒤따른 정치적 구습의 재연, 그리고 이에 대한 朴 議長의 “실망”과 “국가 장래에 대”한 “무한한 不安” 감은 그의 5.16 제 2주년 “紀念辭”에서도 되풀이 나타나고 있다:

…금년 초를 기하여 허용한 政治活動再開 이후로 전개된 政局의 動向에서 우리는 허다한 실망과 비애를 느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들은 이 나라 정치인들의 自省과 자숙을 통한 새로운 정국의 탄생을 기대하였고 청신한 政治的 雰圍氣의 조성을 갈망하였던 것이나, 불행히도 일부 정치인들은 革命을 한 우리들의 진의를 너무도 일방적으로 곡해하였으며, 革命課業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업적 전체의 종합적이고도 거시적인 논평과 달리 枝葉의이고 말초적인 부면에 시종하였고 건전한 政黨政治의 결실한 현실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파벌과 계보를 중심으로 한 對立反目과 離合集散을 거듭하는 혼탁한 政局의 推移를 우리는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朴 議長은 議會民主主義에 대한 代案으로 行政的 民主主義를 강력히 제창하게 되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민정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확신하였다. 마침내 朴 議長은 1963년 8월 30일부로 “轉役”함과 동시에 “民政” 참여의 굳은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본인은 군사혁명을 일으킨 한 책임자로서 이 중대한 시기에 처하여, 일으킨 혁명의 결말을 맺어야 할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二년에 걸친 군사혁명에 종지부를 찍고, 혁명의 악순환이 없는 조국 재건을 위하여 항구적 국민혁명의 隊伍, 第三共和國의 民政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

오늘 兵營을 물러가는 이 군인 [은]...국민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의 한 구절로써 轉役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不運한 軍人이 없도록 합시다.」⁷⁶⁾

이상의 논의로 보아, 朴 議長이 議會民主主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것은 명백하다. 이점은 특히 朴 議長이 제창한 行政的 民主主義論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분명해 진다. 朴 議長이 말하는 이른바 “行政

76) “轉役式에서의 演說”, 같은 책, p.490..

的 民主主義”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朴 議長이 행정부의 역할을 얼마나 중시했는가; 또는 경제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부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朴 議長이 행정부를 중시한 첫 번째 예로서 5.16 직후 “政爭을 일삼았던 立法部”는 즉시 “해산시킨” 반면 “內閣은 그 형태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켰던 조치를 들 수 있다.⁷⁷⁾ 두 번째 예로는 朴 議長이 공무원과 관련하여 행한 연설의 횟수를 들 수 있다. 朴 議長은 最高會議 議長으로 재임했던 30개월 동안 총 21회에 걸쳐 공무원과 관련된 연설을 행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것은 평균 1개월반마다 1회 정도의 연설을 한 꼴이다. 이것을 다른 분야(농촌과 농민—13회; 군—10회; 정치인—8회; 국민운동—6회; 국민일반—6회; 노동단체—5회; 교육—5회; 언론—3회; 종교—3회)와 비교해볼 때, 최저 2배 내지 최고 6배에 해당된다. 朴 議長의 행정부우선주의의 내지는 행정부 집대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전국 곳곳에 浸透해 들어가는 一元화된 強力한 行政體制에 의해 一絲不亂하게 수행되는 과감하고도 효율적인 사회—경제개혁의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朴 議長의 이러한 행정부우선주의는 단시일내에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사회에는 일종의 “一絲不亂의 物神主義”가 지배하게 되었고, 이것은 사회의 모든 부면에 걸쳐 획일화와 경직화를 가져왔다. 행정부우선의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朴 議長이 말하는 “行政的 民主主義”의 의미를 보다 상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朴 議長은 『우리民族의 나갈길』에서 행정부가 先導해 나가는 개혁의 이념으로서 이른바 “行政的 民主主義”論을 제창하였다.⁷⁸⁾ 朴 議長이 말하는 “행정적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치론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모든 매개적 정치과정 또는 매개자로서의 정치인을 배제시키고, 정부와 국민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직접적 접촉을

77) 같은 책, p. 120.

78) 『우리 民族의 나갈길』, 위의 책, pp. 228-231.

통해 政治를 수행한다는 일종의 政治적 당사자주의로 이해된다.

朴議長은 이러한 당사자주의만이 “既往의 腐敗를 一掃하고 國民들의 自治能力을 強化하”고, “社會正義를 具現”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는 달리 “政治的 民主主義의 理念을 살린다는 名目에서 當장 選舉를 한다고 하여 기왕의 나쁜 毒素가 一朝一夕에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행정적 민주주의는 달리 말해서 “「위에서」 내려닥치는 民主主義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아래서」 올라오는 民主主義, 아래서 깨달은 民主主義”로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行政府의…職權行使에 있어서” 國民의 “批判”과 “建議”를 활성화시킴을 뜻한다. 이 경우, 한편으로는 당사자인 정부와 國民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통로가 열리게 되며, 다른 한편 “國會議員” 또는 “新聞記者”와 같은 비생산적 매개과정을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朴議長의 행정적 민주주의론은 素朴한 民主主義論 또는 비정치적 민주주의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적 민주주의는 한국정치を 脫政治化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一見해서 행정적 민주주의론은 직접 민주주의론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의 행사 즉 “職權行使”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國民은 다만 정부의 “職權行使”에 대해 “비판”이나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國民들의 “비판” 또는 “건의”가 행정부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도 갖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들 “비판” 또는 “건의”를 받아들일지나 아니나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부의 “善意”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행정적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윗분”의 의사에 의존하게 되며, 그 결과 권위주의로 타락할 수 밖에 없다. 물론 朴議長은 행정적 민주주의가 “어디까지나 「아래서」 올라오는 民主主義, 아래서 깨달은 民主主義”임을 애써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아래에 의한 민주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즉 행정적 민주주의가 아래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은 행정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살

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朴議長에 의하면, 모든 행정은 종전의 “文書行政”이 아닌 “確認行政”이라는 새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반드시 “지시·감독·확인”의 절차를 밟아 달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총리실의 “企劃統制官”과 各 部處의 “企劃調整官”은 새로운 확인행정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중추기관으로 신설되었고, 청와대 비서실은 이러한 중추부의 최고의 사령탑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행정적 민주주의는 이런 점에서 모든 “이니셔티브”가 “위에 의해” 그리고 “위로부터” 독점적으로 수행되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체계의 한 유형에 속한다.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의 옷을 입힌 開發위주의 행정체제 또는 이러한 開發理念에 충실하려는 국가경영체제이다.

따지고 보면 행정적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 2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일체의 정치적 매개에 대한, 따라서 “政治的 民主主義” 또는 의회제도에 대한 불신풍조였다. 이러한 불신풍조는 결과적으로 維新體制(1972. 10~1999. 10)를 가능케 한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 둘째는 국민과의 직접적 접촉의 강화, 따라서 국민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었다. 朴 政權 18년간에 걸쳐 양적·질적 팽창을 거듭해온 中央情報部의 歷史는 후자에 대한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의 “우리 나라” 또는 “亞世亞”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비추어, 朴議長은 “서구식 民主主義”로서는 결코 “實效를 거두기 힘”들다고 확신했다는 점이다. 그는 “행정적 민주주의”를 논하는 冒頭에서 이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亞世亞의 一般의인 社會經濟的 情勢가 몇 개의 나라를 除外하고는 西歐에서 直輸入해온 民主主義가 그 實效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⁷⁹⁾

79) 같은 책, p. 228.

4. 5.16 비판과 민주발전

그러면 5.16을 일으킨 一部 軍部勢力에 대해 당시 비판적 세력들의 입장은 어땠하였는가? 본 논문은 5.16 당시의 비판적 입장을 일단 『思想界』에 나타난 논설들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思想界』를 택한 이유는 2가지점으로 집약된다. 첫째 『思想界』는 당시 우리 사회의 비판세력을 총괄했다고는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60년대를 주도했던 영향력 있는 비판세력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 둘째 『思想界』는 당시에 표출된 다양한 비판적 견해들 가운데, 오늘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록된 자료의 형태로서, 또한 비교적 체계화와 재구성이 용이한 『月刊誌』의 형태로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思想界』는 5.16이 발발한 다음달인 1961년 6월호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논설문중 가장 중심적인 것은 張俊河⁸⁰⁾씨가 “집필한”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대부분” 그에 의해 집필된— “卷頭言”이다. 이들 “卷頭言”은 1961년 6월호부터 시작하여 軍政이 종료되는 1963년 12월호까지의 31개월간에 걸쳐 一增刊號 3號를 포함하여— 총 34편에 이른다. 이들 34편을 다시 주제별로 보면 5개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정치발전”에 관한 것으로 21편이 여기에 해당된다.⁸¹⁾

80) 그는 당시 『思想學』의 “編輯發行 印刷人”代表였다.

81) “五一六革命과 民族의 進路”(61년 6월호: 이하 61-6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緊急을 要하는 革命課業의 完遂와 民主政治에로의 復歸”(61-7); “八·一五解放과 우리 民族의 課題”(61-8); “昨今の 趨勢에 붙이는 몇마디”(61-9); “一九六一年을 보내면서”(61-12); “一九六二年의 課題”(62-1); “自由의 確保가 勝共의 길이다”(62-6); “科學하는 政府, 科學하는 國民”(62-7); “民政復歸를 一年 앞두고”(62-8); “指導者를 고르는 마음”(62-10); “묵은 해는 가고”(62-12); “一九六三을 맞으며”(63-1); “國民의 「沈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63-2); “民主主義의 동은 떠오르는가?”(63-3); “議會民主主義를 謀略하지 말라”(63-5); “歷史는 이 時期를 어떻게 審判할까?”(63-6); “破綻 直前に 서서”(63-7); “公明選舉는 公約六項履行에서 비롯한다”(63-9); “舊惡과 新惡은 다 같이 물러서라!”(63-10); “누가 國民을 欺瞞하고 있는가?”(63-11); “對日低姿勢와 民族自立”(63-12).

둘째는 “한·일관계”에 관한 것으로 6편이 여기에 속한다.⁸²⁾ 셋째는 “한·미관계”에 관한 것으로 2편을 들 수 있다.⁸³⁾ 넷째는 “문화발전”에 관한 것으로 4편을 들 수 있다.⁸⁴⁾ 다섯째로 “『思想界』의 역사적 과제”에 관한 것으로 5편이 여기에 해당된다.⁸⁵⁾

『思想界』의 5.16 사태에 관한 평가는 초기와 후기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5.16이 발발한 처음 몇개월간 『思想界』는 단순한 中立 또는 觀望的 입장을 취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思想界』는 5.16에 대해 적극적 지지와 관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적어도 초기 4~5개월간 『思想界』는 “비관적 지지의 입장을 취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은 1961년 6월호의 “卷頭言”을 보면 알 수 있다. “五·一六革命과 民族의 進路”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卷頭言”은 “五·一六”이 “不可避한 일”이었다는 점과 “五·一六革命은 四·一九革命의 否定이 아니라 그 繼承”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五·一六革命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開花시켜야 할 民主主義의 理念에 비추어 볼때는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民族의 現實에서 볼 때는 不可避한 일이다. …革命公約이 암암리에 침명하고 있듯이, 無能하고 姑息의인 執權黨과 政府가 수행하지 못한 四·一九革命의 과업을 새로운 革命勢力이 수행한다는 點에서 우리는 五·一六革命의 적극적 意義를 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五·一六革命은 四·一九革命의 否定이 아니라 그 繼承, 延長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⁸⁶⁾

82) “韓·日問題의 解決을 再論한다”(61-10); “一九六二年の 課題”(62-1); “經濟開發五個年計劃과 韓·日問題”(62-2); “議會民主主義를 謀略하지 말라”(63-5); “恥辱의 歷史를 되풀이 하지 말자!”(63-8); “對日低姿勢와 民族自主”(63-12).

83) “一九六二年の 課題”(62-1); “우리는 美國國民에게 묻고자 한다”(62-3).

84) “百號紀念特別增刊號를 내면서”(61-백호 기념특별증간호); “이 땅에도 르네상스가 到來해야겠다”(62-5); “「보다 나은 文學」을 위해”(62-特大號); “現實은 透視하는 內面的 經驗의 눈이 아쉽다”(63-特大號).

85) “本誌 100號 紀念號를 내면서”(61-11); “우리는 왜 『思想界』를 내는가?”(62-4); “새 世代가 우리의 希望이요 힘이요”(62-9); “또 다시 知識人들에게 荊冠을”(62-11); “信賴感에 기반한 「마음의 革命」”(63-4).

86) 같은 책, p.34.

5.16에 대한 『思想界』誌의 적극적 내지는 비판적 지지와 관심의 표명은 이후 4~5개월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軍事政權이 점차 안정기에 들어가고, 또 民政참여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思想界』의 입장은 급격히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1963년 6월호 “卷頭言”에서는 “의회민주정치” 이외의 “여하한 형태의 「假裝된 軍政延長」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임을 명백히 선언하였다:

…強權의 恣意의 지배 없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軍政에 대한 몇몇한 代案으로 가지고 여하한 형태의 「假裝된 軍政延長」도 깨끗이 자취를 감춘 의회민주정치의 正道에 복귀하기 위한 舉國의 輿望과 노력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⁸⁷⁾

본 논문에서는 『思想界』의 초기 입장을 특히 당시 독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威錫憲 선생의 논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경제 발전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威錫憲 선생은 “五・一六을 어떻게 볼까?”⁸⁸⁾에서 “요새는 초면, 구면, 유식, 무식, 남, 녀, 노, 소를 물을 것 없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댜 먼저 하는 말이 「이번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하는 것”이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요약하면서, 5.16을 첫째 민족의 생사가 달린 중대사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나라 전체가 몸살이 아니라 마마를 하고 있는 것이요, 민족의 늙은 어미가…애기를 낳고 있는 것”과 같은 대 사건이다.⁸⁹⁾

둘째 5.16은 “마지막” 혁명이다. 威 선생에 의하면, “사람마다” 하는 말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그는 이 말이 결코 예삿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누가 가르친 것없이 하는 그런 말은 하늘 말씀이다. 귀담아 듣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왜 마지막인가? 칼뿔아 들었으니 마지막이”다. “이번에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공

87) 「思想界」(63年 6월), p. 26.

88) 「思想界」(1961년 7월호), pp. 36-47.

89) 「思想界」(61-7), pp. 36-37.

산당이 다 돼 버리는 것 밖에 길이 없단 말이다. 혁명 일던 새벽에 외친대로 百尺竹頭에 다시 한 발걸음을 내킨 것이다.”⁹⁰⁾

셋째 5.16은 한 단계 “낮아진 혁명”이다. 威 선생에 의하면, “먼저번”의 “학생혁명” 때에는,

…맨 주먹으로 일어났다. 이번은 칼을 뽑았다. 그 때는 밀은 것이 정의의 법칙, 너와 나 사이에 다같이 있는 양심의 권위, 도리였지만, 이번은 밀은 것이 연 알과 화약이다. 그만큼 낮다. 그 때는 민중이 감격했지만 이번은 민중의 감격이 없고 무표정이다. 그 때는 대낮에 내놓고 행진을 했지만 이번은 밤중에 몰래 갑자기 됐다. 그만큼 정신적으로는 낮다. …혁명은 실패할 수록 정신적으로는 내려가는 법이다. 먼저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연 이번은 그럴 수 밖에 없다. …내려갔을 수록 다시 하는 사람은 더 힘이 드는 법이다. 이번 혁명은 그 힘든 것이 학생혁명의 유가 아닐 것이다. 때려서까지 아니 들으면 가두는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번은 감히는 것이다. 그래 감격은 없고 두려움만이, 의견을 발표할 용기는 없고 그저 가만 있음만이 있는 것이다⁹¹⁾

넷째 5.16은 극도의 “不安”감을 주는 혁명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우선 깡패 좀 없고, 썩어진 관리꼴 아니 보고, 잣간 좀 조용하니, 좋다 좋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행진의 뜻으로 볼진댄 이것”은 “자칫하면 떨어져 죽는 낭떨어지 위”로 가는 것 같은 아주 숨막히는 순간이다. 威 선생은 당시의 긴장과 “不安”이 감도는 政局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나?」하는 불안속에 싸여있는 것이 현상이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공산당이 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판단과 공포심은 어떻게 무식한 사람 입에서도 다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라는 것이 무엇일까? 까 내놓고 말하면 「만일 군사독재가 됐다가는」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광대충돌기를 한다. 威則君王이요 敗則逆賊이다. 혁명을 일으킨 군인도 그런 심정일 것이요, 보는 군중도 그렇다. … 그러나 보는 사람은 不安이지, 安心할 수가 없다. 구경은 바로 그 不安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구경일 수는 없다.⁹²⁾

90) 같은 책, p.39.

91) 같은 책, pp.39-40.

92) 같은 책, p.40.

28 특집 : 한국 政治의 發展方向 연구

여기서 우리는 특히 2가지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威 선생은 5.16을 전후한 당시의 정황이 한편으로는 공산화의 위협 즉 좌파적 위협에 직면했었음을 시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군사독재”의 위협성 즉 우파적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었음을 간파하였다는 점이다. 2) 威 선생은 “정치는 구경일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못박는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관망주의 또는 정치적 사변주의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 이러한 관망주의 또는 사변주의가 빠지기 쉬운 “僥倖”主義 또는 “冒險”主義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된다. 그는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겸손”에 바탕을 둔 “모험”이라고 말한다. 威 선생이 말하는 이른바 “겸손”에 바탕을 둔 “모험”이란 결국 “신중”(prudence)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威 선생은 역사적—정치적 실천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威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일이 터지기 바로 二, 三일전 남북협상을 주장하던 학생 몇 사람이 나한테도 의견을 물은 일이 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은즉 도무지 자신 없는 소리였다. 「어쨌거나 접촉해 보노라면 무엇이 나오지 않아요?」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무조건 말리는 것 아니지만, 자신 없이는 절대 하지 마라. 정치 무대는 연주장소일 수는 없다」하고 말해 준 일이 있다. 연구자료도 돼서는 아니되는 정치를 구경심리로 할 수는 더구나도 없다. 그러므로 옛 어진이 말이 君子는 居易以俟命이요, 小人은 行險以僥倖[君子는 편안하게 거하면서 命을 기다리고, 小人은 모험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란다—필자譯]이라 했다. 흔히 乾坤一擲이란 말을 하지만, 生은 冒險이란 말도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되는지 모른다. 그런 말 그렇게 열은 뜻으로 쓰는 것 아니다.

모험을 해야하지만 그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해야 한다.

그러면 손에 칼을 들고 겸손하기는 참 힘이 드는 일이다.⁹³⁾

다섯째 5.16은 빨리 清算되어야 할 혁명이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五・一六”은 초여름에 “한 번 핀” 찬란한 “꽃”과 같다. 威 선생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학생이 잎이라면 군인은 꽃이다”; “꽃은 찬란

93) 같은 책, pp.40-41.

하기가 잎의 유가 아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꽃보다는 “잎”이 “영원히 길어야”한다; “잎은 길이길이 있으므로 나무에 그 바치는 바가 있지만 꽃은 깨꽃이 떨어지므로 그 나무를 위해 영원히 공헌하는 것이 있다”; “꽃은 활짝 피었다가는 깨꽃이 독 떨어져야 한다. “[방점은 필자의 것]

여기서 유의할 점은 威 선생이 “꽃”에 대한 의미규정과 관련하여 “깨꽃”이라는 말과 “떨어진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1) 威 선생에 의하면, 꽃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떨어져야 한다”; “花落能成實이다.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5.16도 “꽃”처럼 반드시 떨어져야 한다. 威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五・一六은 빨리 그 사명을 다하고 잊어져야 한다. 노랑진두에서 많지는 않지만 흐른 피는, 그 알고 모르고를 물을 것 없이 전 국민이 스스로 흘려 역사의 제단에 바친 것이다. 그것은 부득이 하여 한 번 잠깐 할 것이요, 필수록은 없어야 하는 것이요, 있다 하여도 곧 잊어야 하는 것이다.⁹⁴⁾

2) 뿐만 아니라 5.16의 “꽃”은 또한 “깨꽃이” 떨어져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威 선생의 “깨꽃이”라는 말이—그가 “알고 모르고를” 불문하고—일종의 “비연속적 역사관”을 함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의 의도에 비추어보면 진정한 歷史는 “깨꽃이” 떨어지는 꽃에 비유된다. 말하자면 歷史는 清算과 새로운 재창조의 과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지속적인 역사과정은 마치 “진후에도 떨어지기 싫다는듯 시들시들, 지적지적 붙어있는 꽃”과 같이 “참더럽”고, 그러기에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군인정신은 「깨꽃」이라는 한 말에 다 된다. 필 때는 천지가 눈이 부시게 피었다가도 受精이 된 다음엔 깨꽃이 싹 떨어져야 꽃의 값이 있다. 진 후에도 떨어지기 싫다는듯 시들시들, 지적지적 붙어 있는 꽃은 참 더럽다. 그러므로 할 일을 다 한 후는 곧 정권을 민간인에 물려주고 본래의 자리로 물러간다 선언한

94) 같은 책, p.42.

것은 참 군인다운 말이다.⁹⁵⁾

3) 威 선생의 “비연속적 역사관”은 그의 “혁명론”——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민중혁명론”——가운데서도 나타난다. 특히 여기서는 “영구혁명론”이라는 일층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威 선생은 혁명이 “학생” 또는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또는 “민중”만이 하는 것이라고 못박는다. 威 선생에 의하면, “혁명은 사람만이 한다. 학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번에는 실패했다. 군인도 사람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도 군인이 혁명하려 해서는 반드시 실패한다.⁹⁶⁾ “군인이란 뿔아 든 칼이다. 일을 일으킨 것은 그 속의 사람이지만 그 칼이나 군복이 아니다”; 어찌 “학생, 군인만”이라; “관리도, 목사도, 신부도, 교수도 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에 든, 잡은 것의 이름, 그 입은 옷의 이름이다. 사람은 맨 사람만이 사람이다”; “사람은 서로 맨 사람으로 만날 때에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 “날마다 우리”는 “피차 지위 자격을 잊고 맨 사람으로 만나고 대화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것이 정말 혁명이다”⁹⁷⁾

이런 점에서 威 선생은 “혁명”이란 “다른 것 아”니라 “다시 근본 모양에 돌아”감이라고 정의한다. 그러기 위해 “혁명은 제도를 부”셔야 한다; 또 “영원히 그 부수는 운동”이 바로 “혁명”이요, 이 “부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민중이다”; 역사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죽, 낡아서 해 치는,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를 부수려 할 때마다 민중으로 내려와서 그 민중을 그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방점은 필자의 것] 이어서 威 선생은 자못 비장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혁명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군인은 혁명 못한다. 아무 혁명도 민중의 全的 찬성, 全的 지지, 全的 참가를 받지 않고는 혁명이 아니다. ...민중 내놓고 꾸미는 혁명은 참 혁명이 아니다. 반드시 어느 때 가서는

95) 같은 책, p. 42.

96) 같은 책, p. 41.

97) 같은 책, p. 42.

민중과 버거러지는 날이 오고야 만다. ...그리고 오래 속였으면 속였을 수록 그 죄는 크고 그 해는 깊다.⁹⁸⁾

4) 그러나 咸 선생은 민중혁명이 항상 “三日天下”로 끝났음도 또한 잊지 않는다. 더 나아가 咸 선생은 이러한 “민중혁명”의 短命性을 극복하는 길은 “영구혁명”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도 천명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혁명할 때는 민중이 주인이 되지만 사흘이 못가서 속고 뺏기는 것이 민중이다. 혁명 일어나는 날 장교, 졸병, 민간인의 구별 있었을까? 모든 참된 일이다. 그렇다. 나라 운명이 달린 일선에서 참모총장과 졸병이 나란히 섰기로서 이가 저를 높다 할까? 저가 이를 낮다 할까? 그저 한가지 의무, 감격, 생명의 산 운동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대적을 물리치고 진지에 돌아온즉 하나는 「각하」고 하나는 「이 자식」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거짓 것이다. 그제다 뭐냐? 인간의 가슴에서 그런 것을 영원히 버려라! 이 날것 그렇게 속아온 것이 민중이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다.⁹⁹⁾

그런데 아무도 일단 일을 시작하면 제 사람으로서의 근본을 잊고 그 자리에 붙어 버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여서 사람이 제도의 종이 된다. 특권 없는 제도 없다. 혁명은 제도를 [다시말하면 “특권적” 제도를——필자주] 부수는 일이다. 부수면 또 생길 것이다 그러나 또 부수어야 한다. 영원히 그 부수는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¹⁰⁰⁾ [방점은 필자의 것]

혹자는 5.16을 “꽃”으로 비유한 咸 선생의 논의는 한갓 “문학적 비유”나 “詩的 表現의 遊虛”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解”는 咸 선생의 5.16론이 당시에 미쳤던 막중한 영향을 과소 평가할 위험성이 있다.¹⁰¹⁾ 咸 선생의 5.16론은 누구보다도 5.16의 핵심인물

98) 같은 책, pp.42-44.

99) 같은 책, p.43.

100) 같은 책, p.42.

101) 咸 선생의 글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思想界 8월호와 9월호의 “編輯室 앞”란은 咸 선생의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싣고 있다. 옮겨보며 다음과 ;

8월호 p.12 합선생님의 글을 읽고

七月號를 받아든 즉시로 이 달의 咸선생님 말씀 「五・一六을 어떻게 볼까?」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추기는 심정으로 읽었습니다.

32 특집 : 한국 政治의 發展方向 연구

인 朴 議長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朴 議長은 한 때 咸 선생이 “理想化”한 “깨끗”한 “꽃”의 이미지를 열심히 따라가보려

무엇인가로 통겨줘야 하겠는데, 무위적으로 위축당한채 흘러 들어가던 정신상태가 그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젊은이에게는 또렷한 사상적 뒷받침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길은 이 거대한 조국의 <수술>이 하루속히 성공적인 완전한 성과와 결실을 거두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바야흐로 민중은 스스로 참여자가 되고 스스로 동력체가 되어야만 할 시기입니다. 스스로 고통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야 말것입니다.

(光化門局換金貯金課 金鎮秀)

할아버지 선생님의 「五・一六」을 어떻게 볼까는 옆에서 다정스레 돌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수없는 주름살과 흰수염들은 조국을 염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五월의 혁명은 수술이다. 그렇습니다. 수술을 시작한 의사님들의 손이 깨끗하고 바른 수술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귀사의 즐거운 번영을 빕니다.

(대구 계성고등학교 二학년 조복제)

독재가 어째서 善이나?

인류의 존엄성은 國家보다 앞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절대란 무엇일까? 法이나 기구한 절대 완전할까? 代議員은 국민의 진의를 절대로 수행했을까? 물론 독재란 국민과 거리가 더 멀다. 그러나 언제든지 절대로 멀기만 할까? 過速은 교통사고의 근원이다. 때문에 禁物이다. 그러나 결정적 위기에서 通念을 지키다 폭사해야 될까? 말로 타일터가는 말과 때려서 가는 말이 있다. 성난 怒濤도 있고 잔잔한 湖面도 있다.

조작매는 항상 무사할까?

너 속에 仁이 있다면 무엇 겁날까? 미친개 仁君을 안 몰까? 고양이 생선을 지켜 줄까?

정치는 아무게나 하는가?

이 나라정치 험들어 못했나? 도적질 할려니가 어려웠고 뻔한 일 속일려니 어려웠지! 군인하고 학자들이 도적놈만 못할까?

參謀總長이 맥을 못추고 실권을 쥔 野戰司令官이 유엔軍司令官의 뒷받침을 갖고도 맥을 못춘 것은 누구의 힘일까? 하늘의 힘이요, 國民의 힘이 아닐까? 險路에 어찌 冒險이 없으랴, 冒險에는 失敗도 있지만 奇蹟도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살길이 奇蹟 아닐까?

(軍郵二〇九海兵第一上陸師團 第十一聯隊 三中隊 元成翊)

民政에 앞서 꼭 한 마디

五月革命의 成敗는 민족사화의 관건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실패한다는 것은 반만년의 백지화와 민족의 완전한 사멸을 의미할 뿐이다. 이상적 新共和國을 탄생시키려는 진통기에 鬼怖를 느낄 국민이 있다면 癌의 존재일 뿐이다. 우리 젊은 세대

고 애썼던 흔적을 보여다. 가장 좋은 예로서 咸 선생의 글이 나온지 정확히 1年이 되는 1962년 7월 19일 朴 議長의 “忠州” 발언을 들 수

는 특히 혁명대열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으니 그것은 곧 民主福祉國家의 실현에 對한 박차인 동시에 민정예로의 조속한 복귀에 직결되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혁명공약에도 천명된 바 있지만, 가속도적으로 진행되는 과업 완수에 따라 머지 않은 장래에 민정은 곧 수립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정권욕과 금욕에 혈안이 된 전형적 기성정치인의 대두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은 누언을 요치 않지만 아무리 과거가 청렴할 지라도 국가민족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강철같은 신념이 없는 者의 政界進出慾은 아예 내동댕이 칠 일이다. 여하튼 新生第三共和國에 등장할 정치인은 사명의 중대함을 직관감지하여 「포리티시안의 愚를 범치 말고」 거시적인 스테이츠맨이 되어 先見의 明을 발휘」하라.

인류역사는 스테이츠맨에게 항상 최대의 영광을 부여하였다.

(莞島郡蘆花面大京里 朴魯益)

9월호, p.30 회화와 비애 속에 숨바꼭질 하던 해방 후 十六년의 민주역사는 우렁찬 혁명의 행진 속에 다음의 기항지를 향해 험한 항로를 출발했읍니다.

조국의 수난기에 탄생하여 이 나라 민주사회 건설에 미력을 바치려던 귀지의 결심은 변함이 없으나 제2공화국에 그렇게도 亂舞하던 언론의 자유가 민주 조국의 마지막 위기를 구출하려는 과단성 있는 혁명정부 앞에서는 하루 아침에 버어리가 되어버린 이제 「현대군사혁명의 유형」 「五・一六혁명을 어떻게 볼까?」 「현대적 사회개혁의 모델」 등의 육고는 계속하는 혁명 속에 마음의 길잡이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구원의 지평이가 되었으며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터전을 이룩하려는 혁명정부의 좋은 良識이 되었을 줄 믿읍니다.

조국에 불타는 귀지의 끊임없는 충고와 냉철한 비판은 조국의 마지막 혁명과업 완수에 좋은 거름이 될 것을 確信하면서 이 땅의 민주복지사회 건설에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良識을 제공하며 보다 많은 냉철한 건설적 비판으로 귀지 본연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우체국 국내 우편과 李元錫)

용감해 보자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言論人은 <용감>한데 있다. 검정색을 보고 무슨 색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흰색이라고 변명할 따위의 言論人은 있으나 마나다. 그러한 意味에서 咸錫憲씨의 「五・一六을 어떻게 볼까?」는 이 現實을 직관하고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의 글이라고 보겠다. 事實 지금까지의 言論人, 藝術人, 學者 따위들이 革命이 있을 때마다 기다리거나 있었던 것처럼 칭찬의 뉘두리를 겨울밤 옛날 이야기처럼 얼마나 늘어놓았는가? 「四・一九」後가 그랬고 「五・一六」後가 그랬다. 물론 「四・一九」나 「五・一六」이 가진 웅장한 行進을 보고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겠지만 뼈들어질 듯한 方向을 고칠만한 소리는 제대로 들어보질 못했다. 앞으로는 좀더 <용감>해 보자. 그리고 <용감>을 가슴 탁 더놓고 받아들일 <용감>이 필요하겠다. 말 한 마디 제대로 해보자는 말이다. 검정색은 검

있다. 이날 “記者들이 미리 提出한 一聯의 質問에 대해” 朴 議長이 “李 厚洛 代辯人을 통해 答辯”한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된다 :

▲問=國民의 輿論이 議長의 次期大統領職出馬를 願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가?

▲答=아직 全然 생각해본 바 없다. 國民이 衷心으로 國家將來를 생각한다면 다음의 大統領은 政治를 잘아는 政治人중에서 選擇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와같은 軍人은 國家危急時에 一時的으로 必要한 사람일지는 모르나 앞으로 모든 것이 正常化되고 秩序가 바로 잡힌 다음에는 우리같은 사람이 政界에 나 온다는 것은 國家將來를 爲하여 利롭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言論人은 이러한 點에 對하여 國民들을 잘 啓導하고 깨우쳐주어야 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한다. ¹⁰²⁾ [방점은 필자의 것]

여기서 흥미있는 대목은 “다음의 大統領은 政治를 잘아는 政治人 中에서 選擇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분명한 것은 이 말이 혁명공약 제 6 항에 나오는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과는 근본적으로 상충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朴 議長은 “國民들을 잘 啓導”해 주고 또 “깨우쳐 주어야 할” 이른바 “言論人”의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특히 긍정

정색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말이다.

(市內東大門區祭基二洞一二八 車先禮氏方 尹壽千)

威先生님의 「五・一六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을 感銘 깊게 읽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言論人 죽었나 죽었나」라고 하신 말씀은 담담하고 걱정되는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주고 다소나마 安堵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

오늘의 우리나라 신문은 하나의 뉴스 전달의 使命밖에 지니지 못하는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가 좀더 福된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現實을 直視하여 여기에 對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分明히 그리고 迅速히 分析批判함으로써 때로는 崇高하고 때로는 格려하고 때로는 찬사를 아낌없이 베풀어 위기에 處해 있는 祖國의 進路를 明示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言論人들의 批判이 重要な 일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言論人은 言論人으로서의 使命을 완수하기 爲하여 좀더 迫力 있고 果敢하게 펜을 놀려서 올바른 革命課業이 완수되도록 앞장을 서주기를 바란다.

(全南威平郡鶴橋面伏泉里斗洞 魯鳳九)

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적어도 朴 議長의 이러한 “언급”은 평소에 그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정치인”과 “신문기자” 또는 기타의 정치적—사회적 매개체에 대한 편견 또는 불신감과 비교해 볼 때 급진적 언명임에 틀림없다.

다음으로 흥미 있는 대목은 “나와 같은 軍人은 國家危急時에 一時的으로 必要한 사람”일 뿐이라는 대목이다. 보기에 따라 이 대목은 威 선생의 글의 어느 대목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는 느낌을 준다. 다시한번 威 선생의 말을 여기에 옮겨보면, “五·一六은…부득히 하여 한번 잠깐 할 것이요, 될수록은 없어야 하는 것이요, 있다 하여도 곧 잊어야 하는 것이다. … 平和정신은 늘 부르짖어야지만 武斷정신은 한번만 써야 한다.”¹⁰³⁾

威 선생의 논설문을 검토하면서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威 선생의 “정기관”이 놀랍게도 朴 議長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威 선생은 “민중”을 규정하는 대목에서, 1) “맨 사람” 또는 “제사람”끼리의 “만남”을 강조하고, 2) “군인”이나 “학생”, “관리”나 “목사”, “신부” 또는 “교수” 등 이른바 “제도”에 의해 매개되는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지위”나 “자격”에 의해 매개되는 일체의 “만남”을 원칙상 부인한다. 따지고보면 威 선생의 이러한 “非制度的” 또는 “反制度的” 민중론은 “탈정치적 경향”을 강하게 깔고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탈정치적 경향”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정치에 대한 威 선생의 이와 같은 입장은 朴 議長의 그것과 장당한 유사점을 보여준다. 威 선생과 朴 議長의 유사점은 특히 “道德”에 대한 강조—때로는 지나친 강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공통점을 염두에 두면서 威 선생의 논의의 후반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여섯째 5.16은 “인간개조의 혁명”이다. 威 선생에 의하면,

…이번 혁명으로 새로 나온 말은 「인간을 개조해야 한다」하는 말이다. 四·

103) 같은 책, p. 42.

一九 年만 해도 「정신적인 운동으로까지 들어가야 한다」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은 좀더 분명해졌다. 이것도 나와야 할 것이 나온 것이다. 옳은 말이다. 인간이 달라져야 한다. 제도만 고쳐서 되는 것 아니요, 사람, 바로 그것이 달라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¹⁰⁴⁾

여기서 威 선생은 특히 3가지 점에서 “인간개조”의 방향을 논한다. 1) “인간개조”는 기본적으로 “강제”가 아닌 “자유”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 威 선생은 “사람이 다 성인이 아닌 이상,” 더군다나 “민중”이라는 존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무지하고 타락된 것인 이상 어느 정도의 강제가 필요”함을 일단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란 “결국 강제 없이는 아니될 것이”라고 솔직히 털어놓는다.¹⁰⁵⁾ 그러나 “칼 자루 하나만”으로 “인간”을 개조하려는 생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¹⁰⁶⁾ “한 마리 강아지를 길들여 돌리려 해도 강제만으로는 아니 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서일까?” 威 선생에 의하면, 강제는 늘 道理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道理”란 다름아닌 “사람은 다 같은 사람으로, 다 自由를 그 本質로 삼는”다는 것을 “아는 일이다.”¹⁰⁷⁾ 한걸음 더 나아가 “道理”는 “自由”란 다름아닌 “정신의 맘대로 자람”임을 아는 것이다.¹⁰⁸⁾ 요컨대 인간개조란 “국민” 또는 “민중”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길르는 일”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길르는 일”과 강제로 “뽑아올리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威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길르란 말은 뽑으란 말 아니다. 네 할 것 하고는 가만히 하를 법칙을 기대라는 말이다. 열심이 있을수록 성급해지기가 쉽지만 성급해지면 나를 지나쳐 밀기 쉽다. 내가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민중이 스스로 하는 거다. 스스로다. <저절로>란 말 아니다. <제가>란 말이다. 민중의

104) 같은 책, p. 44.

105) 같은 책, p. 44.

106) 같은 책, p. 46.

107) 같은 책, p. 44.

108) 같은 책, p. 38.

흔이 깨도록 깨워라. 그러나 너무 급히 깨우다 정신 병자를 만들지는 마라.¹⁰⁹⁾

…그런데 사실에는 피스를 하나로 민족 개조를 해 보자는 열심당이 어찌 그리 많은가? 그 성의를 아깝게 여긴다.¹¹⁰⁾

2) 인간개조는 “반드시 철학이 그 뒤에 서지 않아서는 아니된다.”¹¹¹⁾ 威 선생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는 특히 “사상이 문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¹¹²⁾ 따라서 현대의 인간개조는 “새 세계관, 새 인생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더구나 人間味를 가진 것”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¹¹³⁾ 그러면 威 선생이 말하는 “人間味”를 가진 “철학—사상—세계관—인생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세계역사의 흐름”과 일치하는 “민주주의”이다. 威 선생에 의하면 “이날까지 이 인류사회의 캄푸를 버려온 “세기둥” 즉 “민족주의”, “私的所有權” 그리고 전통적 “家庭”이 오늘날 모두 “흔들리”고 있다. 이들은 말하자면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새로 어떻게 하지 않고는 세계적으로 번져져 있는 문제를 도저히 풀”길이 없다.¹¹⁴⁾ 여기서 威 선생은 “민주주의”야말로 오늘의 “세계역사의 흐름”과 일치하는 새로운 “철학—사상—세계관—인생관”임을 확신한다.

셋째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론들이 尙存한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첫번째 예로서 “善意的 獨裁”論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에는 정도가 모자란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독재”, 다시 말해서 “선의의 독재”를 “좀 하다가 점진적으로 민주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威 선생은 “그것은 내용없는 빈말”에 불과하다고 一蹴한다. “善意인데 獨裁가 어떻게 있으며, 獨裁거든 어떻게 善일 수

109) 같은 책, p. 46.

110) 같은 책, p. 44.

111) 같은 책, p. 44.

112) 같은 책, p. 38.

113) 같은 책, p. 44.

114) 같은 책, pp. 44-46.

있을까?” “善에”는 “시기”가 없다. “즉각으로 네 혼을 여는 것이 善이요, 선을 하면 또 반드시 알아보고 같이 여는 것이 혼이다.”¹¹⁵⁾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두번째 예로서 “공산화”론이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상황하에서 순수 민주적인 개방체제를 고수하려 할 경우, 이것은 “공산당의 선전에 넘어갈” 위험성을 높여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咸 선생은 이렇게 응수한다:

...그렇게 무서우면 정치에 손을 대지 마라. 사람은 아무리 어리석어도, 어리석을수록 말보다는 사실을 택한다. 공산주의자가 말로 하면 너는 왜 사실로 민중을 얻을 자신이 없느냐? ... 민중이 모를까봐, 유혹에 넘어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칼을 든 것이 군인이 아니라 용기있는 것이 군인이다. ... 공산당과의 싸움이 어찌 무기내기, 주먹내기, 피내기, 거짓말내기, 사람못살게 굴기내기냐? 망성내기, 혼내기, 도덕내기, 믿음내기 아니냐? 그렇다. 믿는 자만이, 민중을 믿는 자만이 이길 것이다. ... 또 협상 무섭다 할 것 있느냐? 우리 자식들이 저것들을 설득이 아니라, 혼의 실력으로 누를 수 있도록, 누르는 것이 아니다, 녹여버릴 수 있도록 한 번 길러 보자꾸나? 군인이 왜 그리 氣魄이 없느냐? 나는 공산당 터럭만큼도 무서운 것 없더라.¹¹⁶⁾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번째 예로서 “반공”론이 있다. 이에 대해 咸 선생은 “반공”론이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방편에 불과하다는 데 주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중을 길르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咸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 당면문제는 반공이지만, 반공만으로 나라 나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발 앞에 당한 바위다. 길은 그 보다 훨씬 더 험하다.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줄로 믿었다가는 큰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국민을 될 수록 넓은 눈을 가지도록, 높은 이상을 가지도록, 깊은 신앙을 가지도록 길러야 할 것이다. 분명히 잊지 말 것, 민중을 길르는 일이다.¹¹⁷⁾

일곱째 5.16은 하나의 외과적 “수술”에 해당되는 혁명이다. “병이 시

115) 같은 책, pp.37-38.

116) 같은 책, pp.38-39.

117) 같은 책, p.46.

초 때에 문지르고 물집이나 했으면 됐을 것”을, 그리고 “약이라도 먹었으면 됐을 것인데, 그말 아니”듣고 시기를 놓쳐 “인젠 배를 갈르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래 칼을 잡은 것이다. 이제 병인에게 할 말은 그저 믿고 참으라는 것 뿐이다. 죽기 각오하고 참아야 한다.” 다른 한편 “칼든 의사” 역시 다음의 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첫째, 성의지. 어떻게서든지 살려주겠다는 정성을 가져 주야지. 醫는 仁術이라 정말 仁해야지.

둘째, 術이 높아야지. 성의 아무리 있어도 기술이 높지 않으면 못살린다.

셋째, 기구가 완비 되야지, 기술 아무리 좋아도 맨 손으로 복부 수술못한다.

넷째, 그러나 外科의 생명은 소독에 있다. ...영응심, 권리육, 제고집, 시기심, 이런 따위는 그 중에서도 무서운, 하나만 물어 들면 모든 성의, 기술, 지식, 기구, 약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당장에 죽고마는 무서운 군이다.

다섯째, 그리고 뭘 수록 신속히 해야지 마취해 놓고 시간 길게 가면 회생 못하고 말지 않나? 얼른하고 물려나서 부모에게 내 주어야지. 지금 민중이 군사혁명 당하고도 어리둥절 하고 말도 못하는 것은 총 소리에 마취 당한 것이다,¹¹⁸⁾

이상에서 검토한 威 선생의 5.16論을 다시 요약하면, 첫째 5.16은 민족의 생사가 달린 중대사이며, 둘째 5.16은 “마지막” 혁명이며, 셋째 5.16은 한 단계 “낮아진” 혁명이며, 넷째 5.16은 극도의 “不安”감을 주는 혁명이며, 다섯째 5.16은 빨리 “清算되어야 할” 혁명이며, 여섯째 5.16은 “인간개조”의 혁명이며, 일곱째 5.16은 외과적 “수술”에 해당되는 혁명이다. 이와같은 威 선생의 5.16論에는 첫째 前・後간 서로 상반된 주장이 다소 발견된다. 예컨대 威 선생은 “혁명”이 “군인”이나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하는 것이며, 따라서 혁명에 있어서의 “제도” 또는 기타 “사회적 매개”의 중요성을 무시하면서도, 다른 한편 혁명에 있어서 단순한 “仁”만이 아닌 “기술”과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이다. 또다른 예로서 威 선생은 역사적 실천에 있어서는 “겸손”에 바탕을 둔 “모험” 즉 “신중성”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 “善”에 “무슨 시기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즉각으로 네 혼을 여는” 일 없이

118) 같은 책, p. 47.

“善”도 결코 행해질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한다.

둘째 威 선생의 모순과 불일치는 그의 “정치론”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정치”가 “구경”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무대”와 “연주장소”를 구분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정치세계의 기본 毒性이라 할 “영웅심, 권리욕, 제고집, 시기심” 등등을 단순히 “병균”으로—치명적 파괴력을 갖는 “병균”으로—치부함으로써 어떤 점에서 그는 정치세계에 대해 지나치게 “소박한” 또는 “몰이해한” 태도마저 보여준다.

끝으로 威 선생은 인간과 역사에 관한 깊은 통찰력도 보여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민중은 타락했어도 타락한 것 아니다. 개인적 도덕적 부족을 시대적 정신이 贖하고 만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지, 타락했어도 역사에 못쓰는 법은 없다¹¹⁹⁾ [방점은 필자의 것]

5.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경제발전을 주장한 朴 의장이나, 민주발전을 주장한 威 선생은 모두가 정치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朴 의장은 5.16을 전후한 당시의 상황을 “政治過剩”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非生産的인 政商輩들”의 “代案없는 비난”에 있다고 본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상호 경합·경쟁하며, 때로는 상충·대립하는 것”이 “정치세계에 공통된 속성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사회에만 국한된 ‘고질’과 ‘악습’으로” 그리고 “우리사회의 두드러진 ‘병리현상’으로 진단하였다.” 그 결과 그는 “비정치적 민주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정적 민주주의론”을 제창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威 선생은 “인간개조”의 당위성을 일단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조는 어디까지나 민주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

119) 같은 책, p. 39.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주체 역시 “맨사람” 즉 “민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인’이나 ‘학생’, ‘관리’나 ‘목사’, ‘신부’ 또는 ‘교수’ 등”과 같은 “‘제도’에 의해 매개되는 인간관계”, 또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지위’나 ‘자격’에 의해 매개되는 일체의 ‘만남’을 원칙상 부인한다.” 그는 특히 “영웅심, 권리욕, 제고집, 시기심” 등과 같은 정치세계의 어쩔 수 없는 기본 속성들을 타부시한다. 그에 의하면, 이들중의 하나만이라도 “묻어 들면 모든 성의, 기술, 지식, 기구, 약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당장에 죽고마는 무서운 군”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치세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은 마침내 한국정치발전을 꾀해서는 정치 그 자체는 배제해야 한다는 逆說을 가져왔다. 정치가 배제된 경제발전론 또는 정치가 배제된 민주주의론은 이러한 逆說의 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정치가 격고 있는 만성적인 정치부재의 현상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逆說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앞으로의 한국정치발전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逆說”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정치발전은 경제발전론이나 민주발전론에 의해 모두 매도되었던 정치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어떤 점에서 오늘날의 한국에서만큼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보다 깊은 理解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도 없다.